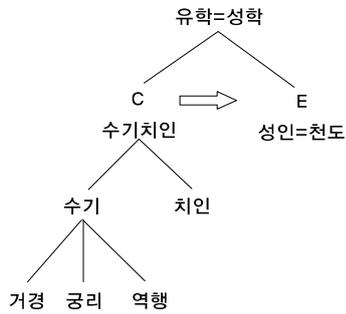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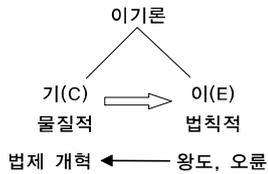
2018 수능국어 완벽대비
LIVE
 6월 모의평가 해설특강
이원준
 60121613

총평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비문학이 가장 높았을 것이며, 화작문, 그리고 문학 순서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작문	화작에서 신유형이 출제되었는데 화법의 인터뷰와 작문의 설명문을 결합했다.
	5번 문항의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변별력이 있었을 것이다. 비문학스러워진 화작문으로, 이전처럼 단순하지 않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지문도 길어졌다.
	9번, 10번 문항은 논증을 잘 분석하고 풀어야 하는 문항이다. 역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다.
	14번 문항 많은 학생들이 ①,④를 오답으로 골라,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에 '따뜻한 봄'에서 '따뜻한'이 관계관형절이었는데,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관계관형절은 학생들이 거의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교육 과정상 건전한 문제이긴 하나, 많은 수험생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비문학	16-21번 문항 인문과 사회가 결합되어 있는 문항으로, 처음 1,2,3문단은 수특 73p와 연계되어 있고, 4~7문단은 수특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 리트 25~27번 문항과 유사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21번 문항이 2010년 리트 27번 문항과 출제아이디어가 유사하여 평가원에서 자신들이 출제했던 리트 문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2-25번 문항 경제 지문으로, 비연계이다. 통화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논쟁이 소재로 활용되었다. 23번 문항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인과 관계에 대한 정확한 도식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 와 %p를 구별하지 못하여 2015학년 수능 영어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섬세하게 구별되어 있다.
	30-34번 문항 수특 226p 연계 문항이다. 수특에서는 IP 주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 글에서는 DNS 스푸핑(피싱)이라는 해킹 기법을 설명하면서 더 깊게 들어갔다. 31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연쇄적 인과관계에 대한 도식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었을 것이다. 33번 문항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는 문제라서,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문학	문학 문제는 평이하고 EBS 연계율이 높아서 변별력이 높지 않았으며, 별다른 이슈는 없다. 이번 6평 문학은 현대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특에서 연계되었다. ● [26~29]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수특53p [35~38] 「적성의선」 : 수특306p [39~41] 「큰 산」 : 수특161p [42~45] 「오류가」 : 수특108p, 「차마설」 : 수특261p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2017학년도 EBS 발표에 따르면, 6평(비문학 10문항, 문학 12문항) 9평 (비문학 10문항, 문학 11문항) 수능(비문학 8문항, 문학 11문항)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수능에서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인해 체감 연계율은 더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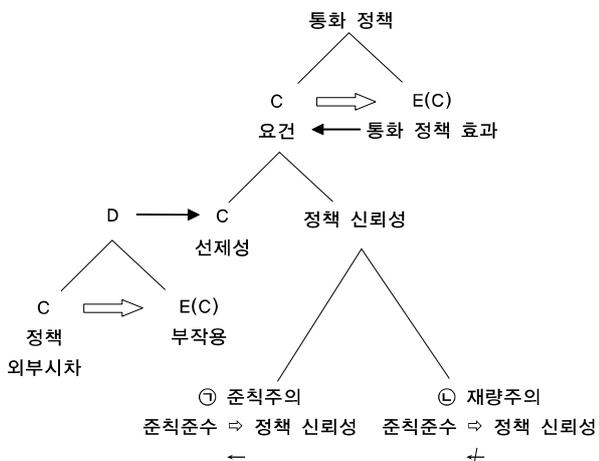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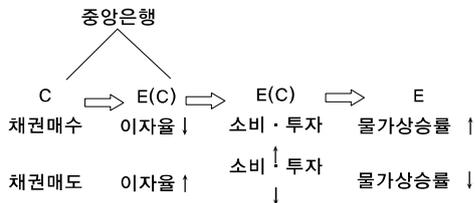
[16~21] 율곡의 수기치인과 법제 개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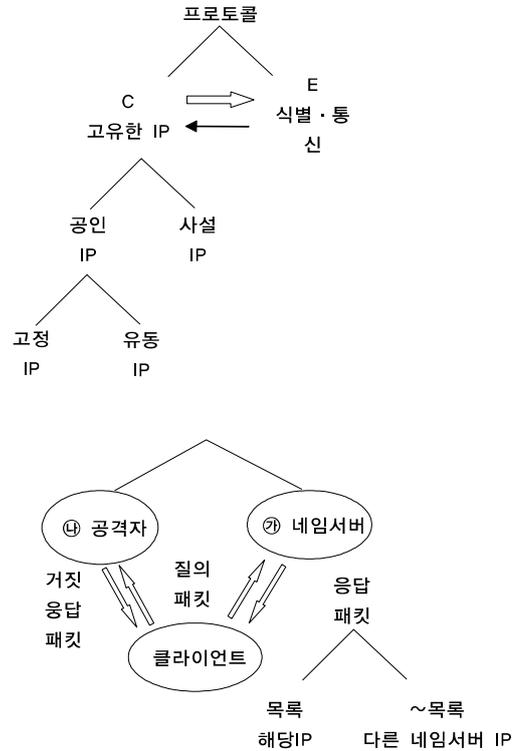
지침 → 수교 → 록 → 대전
~폐단 영구적



[22~25] 통화 정책의 요건과 쟁점



[30~34] DNS 스푸핑의 원리



◎ 왜 지식구조(스키마)를 장기기억으로 체화해야 하는가?

- (1) 도식을 통한 표상화로 이해와 추론, 기억이 정확해지고 빨라진다.
- (2)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 (3) 도식을 통해서 생략된 부분도 추론이 가능해진다.

※ C → E

C(cause)는 원인, 수단
E(effect)는 결과, 목적

※ D → C

D(data)는 근거
C(claim)는 결론

2018 수능국어 완벽대비 이원준 6월 모의평가 해설 60121613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7	①	8	②	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⑤	24	①	25	⑤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③	39	⑤	40	②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⑤

■ 3점 문항 : 5, 10, 14, 21, 23, 27, 31, 38, 41, 44번
(나머지 문항은 2점)

[화법과 작문]

[1~3]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발표

1.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 ②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 ③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고 마지막 두 문단에서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 ④ 문화유산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마지막 문단에 학교와 가까운 박물관에서 열리는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② 청중들이 지난 주 진로시간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배워 잘 알고 있을 테니 위 발표에서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디지털 복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4문단에서 석굴암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의도·관점·입장 파악 (T3)

- ① 유형, 무형이라는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문화유산의 종류가 아닌 훼손 정도에 따른 디지털 복원 가능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복원 가능 여부가 아닌 디지털 복원의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과학 기술 이외의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그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발명가와 인터뷰 & 발명에 관한 설명문 쓰기

4.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 ① 학생 2는 발명가가 설명한 발명의 개념을 ㉠에서 반복하면서, '쉽지 않은데요'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에는 특별한 과학적 상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
- ③ 학생 1은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발명가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발명가의 이전 발화를 참고하여 체험 단계 이후의 과정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 ⑤ 발명가는 손전등의 사례를 들어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는 발화의 의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에도 발명 도중에 겪은 어려움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②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발명가가 모형의 각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물품은 양념 담은 통이 아닌, 필기구이다.
- ④ (가)에서 발명가가 손전등을 참고하여 빛을 내는 볼펜의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처럼, (나)에서도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하여 물에 뜨는 자전거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실제로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6.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글의 중심 내용, 즉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관한 요약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의의에 대해서만 말하

고 있다.

② 글의 중심 내용에 관한 요약만 나타나 있고, 그 의의를 밝히는 내용이 없다.

③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잘못된 요약이다.

④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관한 요약이 되어 있고, 그 의의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으므로 글의 마무리로 적절하다.

⑤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관한 과정이 요약되어 있으나, 이후의 적용 단계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7.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나)에서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먼저’, ‘그 후’, ‘마지막으로’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순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③ 2문단 마지막 문장, ‘보이기도’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수행하는 행동이므로 능동형 ‘보기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3문단 마지막 문장의 내용, 감상문을 쓰는 것은 발명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⑤ 4문단 두 번째 문장,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는 마지막 문장인 ‘~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의 사례이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8~10] 주장과 반박 : 여름방학 기간 단축 토론

8.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ㄱ. 학교가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ㄴ. 여름방학 단축의 문제점만을 서술하고 있다.

ㄷ. 여름방학 단축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ㄹ. 반론을 예상하고 미리 반박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 ㉒

9.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① (가)가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며, (가)에서 제시된 근거를 반박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여름방학의 의미가 여유를 찾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여름방학에 오히려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③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체험학습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④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만, 절충안 제시가 아닌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A]와 무관하다.

② 체험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는 [A]와 무관하다.

③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A]와 무관하다.

④ [A]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고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겨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4번 선지에서는 [A]의 의견을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의 근거로 학습의 연속성 확보를 들고 있는데, 그 관련성을 약화하는 5번 선지의 근거는 [A]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

[문 법]

[11~12] 단어의 상하 관계와 공하의어 사이의 관계

11.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타악기’는 ‘팀파니’, ‘실로폰’, ‘북’, ‘심벌즈’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상의어로, 하의어인 ‘실로폰’에 비해 조금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하의어들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기 때문에, ‘타악기’가 가진 [두드림]의 의미 자질을 ‘북’도 함께 가진다.

③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기 때문에,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악기’가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④ ‘심벌즈’ - ‘타악기’ - ‘악기’ - ‘기구’의 상하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공하의어가 아니라 각각 상의어와 하의어 관계에 있다.

⑤ 하의어들은 상의어를 함의하는 동시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 자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현악기’와 ‘관악기’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에 더하여 ‘악기’의 의미 자질이 덧붙여지고, 하의어들 각각의 구체적 의미 자질까지 갖게 되므로 의미 자질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① ㉑ 북극과 ㉒ 남극의 상의어로 <보기>에서는 ‘지구의 양극’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공간이 북극인 동시에 남극일 수는 없으므로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지구의 양극’의 공하의어는 북극과 남극 이외에는 없으므로 상보적 반의 관계 또한 성립한다.

② ㉑ 여름과 ㉒ 겨울의 상의어로 <보기>에서는 ㉑ 계절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계절이 여름인 동시에 겨울일 수는 없으므로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여

름과 겨울 이외 봄과 가을이라는 공하의어가 존재하므로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㉓ ㉔ 뽕귤과 ㉕ 갈매기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는 공하의어이기는 하지만 상보적 반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㉖ ㉗ 여름과 ㉘ 계절은 공하의어가 아니라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㉙ ㉚ 여름과 ㉛ 겨울은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지만 상보적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㉜ 개와 ㉝ 갈매기의 관계 또한 비양립 관계이지만 상보적 반의 관계는 아니다.

13.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㉑ ‘**훙하고[흐카고]**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자음군 단순화와 ‘ㅎ’ 축약 현상이다. 따라서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난 것이 맞으며, ‘ㄹ’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축약되고 ‘ㄱ’이 되었으므로 두 개의 음운이 줄어든 것이다.

㉒ ‘저녁연기[저녕년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ㄴ’ 첨가와 비음화 현상이다.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난 것이 맞으나, 증가한 음운의 개수는 첨가 현상에 의한 1개뿐이다.

㉓ ‘부엌문[부영문]’과 ‘뽕는[봉는]’에서 일어난 교체는 두 번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교체가 한번, 그리고 비음화 현상으로 인한 교체로 두 번이다. 음운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

㉔ ‘없지[언찌]’와 ‘뭍고[물꼬]’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교체와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음운의 개수는 탈락으로 인해 하나 감소하였다.

㉕ ‘뽕네[넝레]’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 ‘뽕는[방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운의 개수는 선지와는 달리 탈락으로 인해 하나 감소하였다.

14.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오답률2위)

㉑ ㉒의 안긴문장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에는 관계관형절 ‘따뜻한’이 내포되어 있다. ‘봄이 따뜻하다’ 이 문장이 ‘봄이 빨리 오기’ 문장에 안기면서 동일한 주어인 ‘봄’이 생략된 것이다. 한 단어로 이루어진 관계절은 고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험생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㉓에서는 ‘친구’를 ‘내가 만난’의 관계관형절이 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 ㉕에서는 ‘값이 비싸다’는 안긴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㉖의 안긴문장 ‘피곤해하던’/‘엄마가 모르게’ 중 어느 것도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㉗ ㉘의 명사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빨리’라는 부사어가 있다. 그리고 ㉙의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에도 ‘정말’이라는 부사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㉚ ㉛의 명사절 속에는 주어 생략된 관계관형절이 있다. 그리고 ㉜의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의 목적

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와 ‘배추’로 동일하므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㉝ ㉞의 안긴문장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㉟의 안긴문장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㉑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이 ‘이’, 즉 모음 ‘이’로 끝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격 조사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라’가 들어가야 한다. 참고로 ‘니’는 ‘이’의 옛말이다. ‘라’는 종결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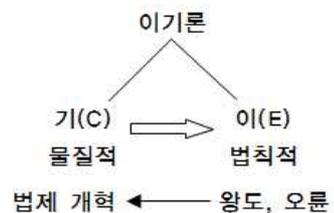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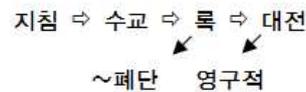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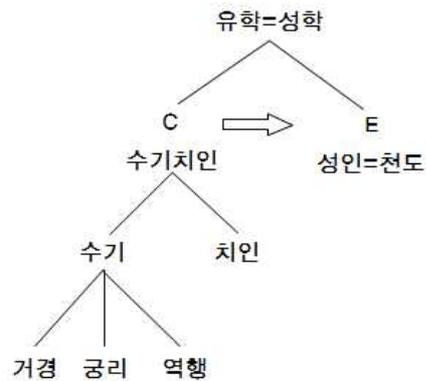
㉒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이 ‘바’, 즉 모음 ‘이’와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므로 서술격 조사는 ‘ㅣ’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바+ㅣ’=‘배’가 되어 ‘배라’로 나타난다.

㉓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이 ‘다락’, 즉 자음으로 끝나므로 서술격 조사는 ‘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라기라’(연철)로 나타난다.

정답 : ㉔

[독서 - 인문,사회]

[16~21] 율곡의 수기치인과 법제 개혁론



16.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은 곧 성인을 의미한다. 1문단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성학은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율곡 이이는 『성학집요』를 통해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였음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국왕이 주최한 조정의 회의를 통해 사안을 다루는 과정을 거쳐 ‘수교’가 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대전’은 ‘록’ 중에서 지속적 적용을 거쳐 영구성을 판정받은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은 ‘록’의 특성인 ‘폐단이 없다’라는 특성과, ‘지속적으로 시행(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 ⑤ 6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확정된 이후에 개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17. [출제의도] 의도·관점·입장 파악 (T3)

- ①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은 ‘시간적 전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갖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지문에서 언급된 ‘기’의 특성을 만족한다. 또한 ‘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되었듯이, ‘이’와 ‘기’는 분리됨 없이 더불어 존재한다.
- ②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기’가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 역시 ‘이’에 대한 특성이므로 대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율곡은 ‘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3문단에 언급된 기질 변화론에 대한 내용이다. 지문에 따르면, 탁한 기질을 정화함으로써 ‘이’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 ⑤ 3문단에 언급된 ‘이통기국(理通氣局)’에 대한 내용이다. 지문에 따르면, 만물은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고, 다양한 ‘기’의 성질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18.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수기’는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차원, ‘치인’은 자신이 아닌 나라, 세상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차원의 논의이다. ‘수기’와 ‘치인’을 위한 ‘수양론’과 ‘경세론’이 ‘이기론’과 연관되긴 하지만 ‘수기’와 ‘치인’이 각각 ‘이’와 ‘기’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며 ‘이’와 ‘기’를 정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
- ② ‘이기지묘’는 ‘이’와 ‘기’에 대한 논의이며, 분리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따라서 ‘수기’와 ‘치인’에 대응한 점과 그에 대한 설명 모두 잘못되었다.
- ③ 지문 1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양론과 경세론은 모두 천도, 즉 성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④ ‘이통기국’은 성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지닌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 중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역행’이 아니라 ‘궁리’이다.

19. [출제의도] 의도·관점·입장 파악 (T3)

- ① ‘이’는 물질(기)과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에,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데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만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 말할 수 없다.
- ③ 율곡의 ‘성인’은 기억보다는 수양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순서를 바꾸어 잘못된 정보로 선지를 구성하였다.
- ④ 플라톤의 ‘이데아’는 <보기>에서 언급되었듯이,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플라톤의 이상 세계는 물질의 한계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기 어렵다.

20.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율곡’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법제 개혁이라는 방식을 통해 결국 ‘경세론’의 실천을 목표로 하였다.
- ②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이 아니라, 폐단 있는 여러 법령들을 개정하고 있지 않는 국왕에게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 ③ 법제 개혁에 대하여, 부당한 법령을 오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했던 권세자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문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약화하는 이들로 인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삼강’은 ‘이’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불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에 근접해야한다는 법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경국대전>>은 성종 때에 확정된 것을 미루어 보아, 연산군 이전에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제정된 악법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마지막 문단에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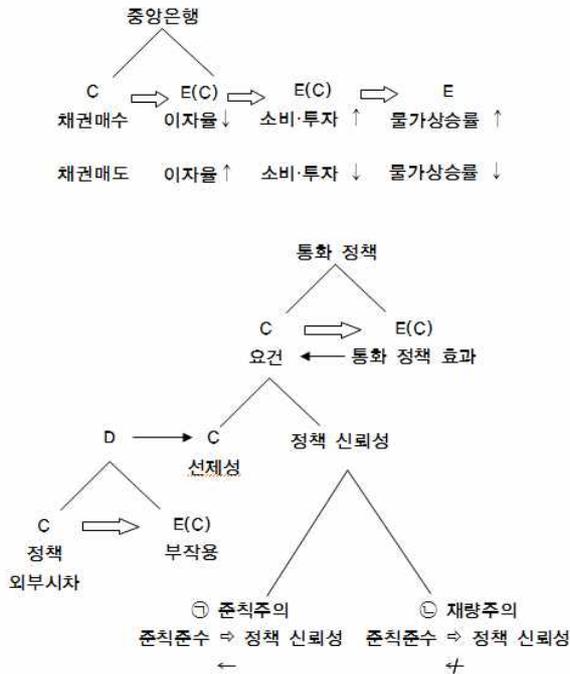
21.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숙종이 갑에게 (다)를 적용했다는 것은 선왕들이 정해놓은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있다. 따라서 이는 조종성현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② 속종은 오히려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 ③ 속종이 <<대명률>>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려는 태도라 보는 것이 옳다.
- ④ (나) 역시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법 미의가 될 수 있다. 속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곤장이 아니라 사형이 더 적합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⑤ 속종과 대신들 사이에는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 또한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독서 - 경제학]

[22~25] 통화 정책의 원리와 쟁점



22.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경기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인과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 ④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라는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T4) (오답률1위)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학자 병은 2분기와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p만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지문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개 시장 운영은 이자율을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높여야 공개 시장 운영이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을 참고하면, 2분기와 3분기의 물가 상승률 1%p감소를 위해, 1,2분기의 기준 금리를 4%로부터 1.5%p만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2분기의 시작인 4월 1일에도 유지해야 한다.

정답: ⑤

24. [출제의도] 의도·관점·입장 파악 (T3)

- ① ㉠은 준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것이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② ㉡은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③ ㉠은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신뢰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은 정책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준칙에 엄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④ ㉡은 민간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준칙에 엄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⑤ ㉡은 준칙을 지키는 것 보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은 준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④에서는 ㉠~㉣의 문맥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은 부양(浮揚)으로,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미인 반면, 선지에서 사용된 것은 부양(扶養)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의미이다.

[문학 - 현대시]

[26~29] 문학적 시간 / 조지훈, 「고풍 의상」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26.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이 시에서의 시간적 배경은 주어진 것으로, 이미 달이 떠 있을 정도로 밤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깊은 밤으로 변화해온 시간, 어두워질수록 더욱 그윽해지는 정취 등을 드러내기 위해 '깊어 가는 밤'이

라는 현재형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 ② ㉠은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으로, 현재형이 쓰이는 것은 문학적 시간을 재구성하는 주된 방식이다.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③ ㉡은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형이 아니었다면 ‘열었고’, ‘열었더니’ 정도의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④ ㉢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시간의 정확성이 아닌 모호성을 드러낸 경우이다.
- ⑤ ‘흔들어지이다’는 과거형 진술이 아닌, 미래형 진술이다.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에서 추측과 의지 등을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리-’가 사용된 것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어지이다’는 공손히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주로 기도문 등에 사용된다.

27.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 ① 이 시에서 청자는 오늘의 ‘어머님’이고, 전하는 내용은 과거 ‘아버지’와의 추억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가 예닐곱 살 때의 집이므로 현재 위치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화자는 곁에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현재의 순간과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상태이며, ‘옛날처럼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는 현재의 일이고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은 오래 전 일이지만, 화자가 과거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과거와 현재는 분리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되고 있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하며 화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게 화자가 시간을 재구성한 순간이다.

28.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곱아라’(고아라)와 ‘파르란’(파란) 등을 활용하여 변주를 주고 있다.
- ②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대청’ ‘거문곶줄’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동시에 ‘아름다운지고’, ‘밤도 소이다’, ‘골라 보리니’, ‘흔들어지이다’ 등의 예스러운 어투를 활용하여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호장 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는 인물을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파르란’, ‘자춧빛’, ‘하얀’ 등의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선명한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아미를 숙이고……’의 말줄임표가 사용되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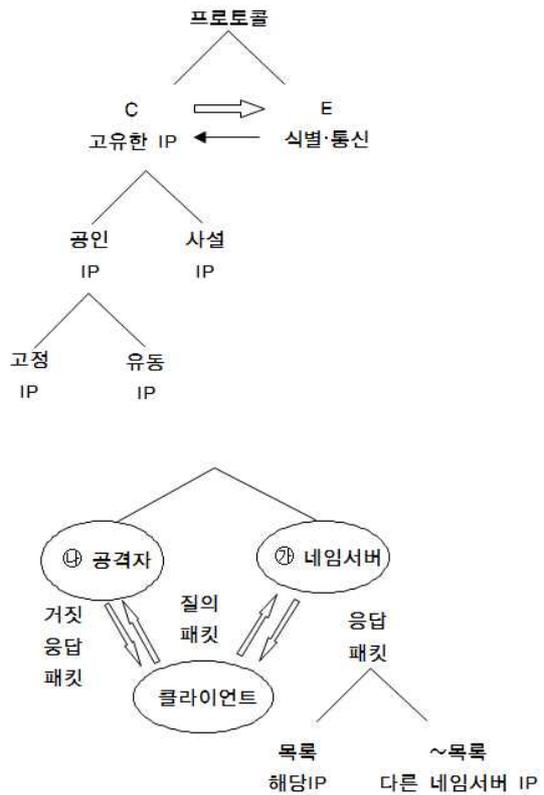
시적 대상이 춤을 ‘사뭇이’ 추고 있는 장면으로 동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 정적인 상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말줄임표를 통해 거문고 연주와 함께 면밀히 이어지는 춤사위의 여운을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9. [출제의도] 주제·요지·구조 파악 (T2)

- ① [B]에서는 과거 아버지가 화자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이 현재의 화자에게로 이어져, 화자도 자신의 아이들을 곁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② ‘한 줌 뺏가루로 삭아’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재하는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이 시 전체에서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 ③ 하얀 뺏가루의 색깔과 하얀 얼음의 색깔을 서로 연상하면서, 화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 ④ 자신의 등으로 화자의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의 마음은,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일치하는 행동이었다.
- ⑤ 화자는 지금도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고 말하며 그리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독서 - 기술]

[30~34] DNS 스푸핑의 원리



* 본 해설지의 내용은 이원준국어연구소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0.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고 IP, DHCP, UDP 등 소개된 프로토콜들은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 ② 2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고 나와 있다.
- ③ DHCP는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IP 주소를 할당해 준다. 즉,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받는 컴퓨터이다. 유동 IP 주소를 부여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 ⑤ 5문단에 UDP는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31.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오답률4위)

- ① ㉠가 두 번 작동했다는 것은 처음 질의 패킷을 보낸 네임서버에 해당 IP 주소가 없어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에 똑같은 질의 내용을 또 보냈다는 것이다. 즉, 질의를 수신하는 측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다.
- ② ㉡가 두 번 작동했다는 것은 처음 클라이언트가 질의 패킷을 보낸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응답 패킷으로 보냈고 클라이언트가 두 번째로 질의 패킷을 보낸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응답 패킷으로 보낸 것이다. 즉, 두 응답 내용은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도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다.
- ③ 질의 패킷을 받은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았으면 그 주소를 반환하고 찾지 못했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반환한다.
- ④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므로 ㉠에는 네임서버에서 보낸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의 경우 ㉡에서 공격자가 보낸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로 접속하게 된다.

32.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오답률3위)

-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것이다. 꼭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IP 주소를 통해 서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다르다.
-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은 한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주소를 DHCP가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하기 때문에 컴퓨터들이 동시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없다.
- ④ IP 주소는 컴퓨터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 지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

터들에 동시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없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같을 수도 있다.

33.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오답률5위)

- ① hosts 파일을 삭제하면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낼 수밖에 없어 DNS 스푸핑을 피할 수가 없다.
- ② hosts 파일에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적혀 있어도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해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낼 수도 있으므로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없다.
- ③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므로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없다.
- ④ hosts 파일에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적혀 있어도 접속하고 싶은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가 없다면,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되므로 결국 UD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한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없다.
-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hosts 파일에 적혀 있으면 질의 패킷을 보내지 않고 바로 그 주소로 접속해서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제조하다: ‘만들어지다’는 ‘제조하다’의 상의어로 ‘제조하다’는 그 대상이 물건임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다. 이 지문에서는 만들어지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② 표시하다: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 ③ 발생하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없던 사물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의 ‘이루어지다’는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나 요소가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다르다.
- ④ 인정하다: ‘알아내다’는 모르던 것을 알아내는 것인데, ‘인정하다’는 알고 있던 것에 대하여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 ⑤ 비교하다: ‘비교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유사점, 차이점 등을 고찰하는 것인데 기준점의 존재를 함의하지 않는다. 반면, 지문에 있는 ‘A에 B를 맞추다’는 A가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자질이 다르다.

[문학 - 고전소설]

[35~38] 작자 미상, 「적성의전」

35.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① 화상은 성의의 마음이 부정할 것을 경계하여 칠 일 제재 후에 보탑존자를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의가 눈물로 호소하자 보탑존자의 분부를 떠올리고, 그를 존자에게 안내하였다. 화상이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성의는 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 본 해설지의 내용은 이원준국어연구소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것이 아니라, 모친의 병을 낫게 할 일영주를 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겠다는 의도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성의가 눈물로 호소하자, 화상은 “작일에 존자 분부 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탑존자가 성의가 찾아올 것을 미리 화상에게 일러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리 소리를 들었다. 그는 성의의 피리 소리를 선동이 희롱하는 소리로 오해하였고, 시동에게 그 피리 소리를 찾을 것을 명하였다. 승상이 자리를 떴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호 승상의 명에 시동이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 곳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승명’은 명령을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령 이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피리 소리를 따라 한 곳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동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① [B]에서 성의는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황천으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B]에서 성의는 바위에 기대 앉아 사형을 원망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성의는 형이 무죄한 인명을 죽이고,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것을 원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의와 형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B]에서 성의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음에 원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한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부모의 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B]의 ‘창천이 욱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라는 부분에서 자연물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7. [출제의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① 성의는 ㉠을 ‘대 소리’로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축나라 땅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② 성의는 ㉡ 소리를 통하여 손에 짚이는 곳에서 실과를 찾을 수 있었다.

③ ㉢의 소리를 들은 성의는 여러 대 중에서 우는 대를 찾아 짧은 피리를 만들었다.

④ ㉣ 소리는 성의의 피리 부는 재주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이 천상계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호 승상에게 알려졌다.

⑤ 성의는 ㉤을 통하여 호 승상의 명을 받은 시동을 만나게 되었다.

38.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성의가 원래 하계사람이 아니었다는 내용,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에서 천상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뿐만 아니라 화상, 경문 암송 등에서 불교 설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③ 존자는 성의를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화상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권선징악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성의의 현재 곤경은 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형제 갈등, 즉 가족 내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성의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서방 세계에 보탑존자를 만나러 갔다. 이를 통해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문학 - 현대소설]

[39~41] 이호철, 「큰 산」

39. [출제의도] 주제, 요지, 구조 파악 (T2)

① 제시된 장소는 아내가 고무신을 던진 골목길과 아내와 내가 눈을 구경하다가 고무신을 발견한 집 뜰 두 군데이다. 그러나 두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②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이며, 제시된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에 해당한다.

③ ‘나’는 열흘 전 아내가 골목길에서 고무신을 던지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작중 인물인 ‘나’가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앞부분의 설명은 열흘 전에 아내가 한 일을 추측을 포함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의도, 관점, 입장 파악 (T3)

① 열흘 전쯤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내의 자존심이 잠시 언급되었지만,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본 ‘나’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② 나와 내내는 눈을 보며 장난스런 대화를 나누다가 고무신을 발견하고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따라서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불안감으로 인하여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는 설명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와 아내가 열흘 전쯤의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와 아내는 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무신을 발견하고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④ 아내도, 나도 미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고무신과 관련한 미심한 느낌이지 서로에 대해서 미심한 느낌을 가진 것은 아니다.

⑤ '나'는 고향의 큰 산이 떠오르려 하는 것을 머리를 흔들며 지워 버렸다. 따라서 그 기억을 날날이 되살리려 애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고무신쪽에 대하여 느끼는 미심한 느낌과 액땀 등의 내용에서 미신과 같은 주술적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내는 미심한 대상인 고무신을 아무 집이나 담장 너머로 던져 넣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것은 고무신에서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주술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무신쪽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와 장난스럽게 응대하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은 확인할 수 없다.

[문학 - 고전시가, 고전산문]

[42~45] 주세붕, 「오륜가」 / 이곡, 「차마설」

42. [출제의도] 주제, 요지, 구조 파악 (T1)

①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에서는 대구를 활용하며 재물이나 권세 같은 것에 대해 '소유한 것'과 '빌린 것'이라는 상반된 세계관이 나타나 있으나, (가)에서는 상반된 세계관이 등장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닌 경계의 시선이 담겨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해 경계와 권고나 나타나 있다.

⑤ (가)에는 오륜의 가치가 살아있는 유교적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나)에는 현재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 있지 어떤 구체적 이상향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가)에는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43.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① (가)에 등장하는 관념적 덕목들은 모순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② (가)에 등장하는 덕목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에,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 글쓴이는 남의 말을 빌린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반적인 사람들, 즉 군신 관계와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등으로 확대하며 그 깨달음을 일반화하고 있다.

④ (나)에서의 글쓴이는 인간적 감정이 쉽게 변화했던 경험을 토대로 소유에 집착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적 질서가 욕망의 실현을 돕는다고 표현할 수 없고, 자연적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깨달음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 깨달음은 경이감이 아닌 경계에 가깝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덕성이 아닌, 각각 인간이 지닌 덕성과 욕망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참된 인간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정보의 평가와 적용 (T5)

① '별과 개미'는 여왕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 <제3수>에서는 그런 '별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군신유의(君臣有義)'의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의 가치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선지의 내용처럼 문답 방식을 통하지는 않았다.

③ <제5수>의 1행에서는 동생의 발화로, 그리고 2행에는 동생을 부르는 형님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화자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비유하며 경계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제6수>에서는 '늙은이'를 '부모', '어른'에 대해 '형'으로 빗대어, 오륜(五倫)의 가치는 가정 윤리와 사회 윤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궁' 하기는 하지만 위험에 처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는 그런 경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하물며 진짜로 자지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며 그것을 소유할 때 역시 그러한 감정이 생길 것이라 여기고 있다.

③ '나'가 말하는 '미혹된 일'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빌린 것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미혹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④ ‘나’가 ‘임금’을 ‘독부’로 표현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모습이 아니라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겼을 때의 모습이다.

⑤ ‘나’는 맹자의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빌린 것을 마치 소유한 것으로 여기는 행태를 떠올리게 되었다.

수능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 이원준

평가시험은 평가 내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성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식형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고형 시험이다. 적성 평가인 수능은 사고형 시험에 해당한다. 여화·이해·추론·비판·창의라는 문항 영역은 실제 추론 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다. 적성 시험 전문가인 민찬홍 교수는 이 다섯 가지 문항 영역을 비판하고 새로운 문항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원준 모의고사는 이 다섯 가지 문항 영역에 기반하여 출제되고 있다.

- ◆ T1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 T2 : 주제, 요지, 구조 파악 - 제시문 전체 또는 부분의 주제, 중심 생각과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또 제시문 전체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 T3 : 의도, 관점, 입장 파악 - 글쓴이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 가진 의도, 관점, 입장,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 T4 :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또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 T5 :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SDSS

Study Decision Support System

펜타그램 (5유형) 성적분석 <http://sds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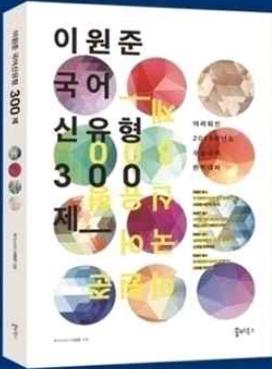
- **답안 입력** 답안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 **채점 결과 보기** 평균, 문항별 정답률 등 채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적하여 성적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진단 결과** 입력된 답안을 토대로 이원준국어연구소만의 개별 성적 분석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원준국어연구소

메가스터디 국어 1타 이원준 쌤의 '이원준 국어신유형 300제'

2018 수능국어 대비 '신유형 고난도 강혼련' 문제집



긴 지문과 사고력평가 문제까지,
[PART 01 / 신유형 비문학]

신유형 국어 대비에 가장 적합한,
[PART 02 / 핵심 LEET/MEET/PEET]

갈래별 복합과 고난도 문제까지,
[PART 03 / 신유형 문학복합]

중세문법과 고난도 문제까지,
[PART 04 / 신유형 국어문법]

도서 바로가기

» 출간기념 이벤트 «

'고난도기출 이항대립노트' 무료 제공



- 1
 평가원/수능 기출 중 꼭 봐야하는 고난도 독서지문 수록
 - 조선의 지평론 (2019학년도 수능)
 - 동물의 감정기 방법 (2014학년도 수능모의)
 - 신기후 천상의 물리 (2009학년도 4월 모의)
 - CT촬영의 원리 (2018학년도 9월 모의)
 - 칸트의 학대 판단 (2015학년도 수능)
 - 간혹재로 은크레타의 발견 (2017학년도 2월 모의) 외
- 2
 스스로 이항대립 그려보며 연습
- 3
 이원준 선생님의 이항대립도를 보여 비교

이벤트 기간

2017년 5월 30일부터 준비된 서문틀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선착순)!

이벤트 대상

'이원준 국어신유형 300제'를 구매하면,
'고난도기출 이항대립노트'가 함께 배송됩니다!

※ 본 해설지의 내용은 이원준국어연구소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